

특별취재

# 김생기 정읍시장 소비자 대상

노점홍 부안부군수, 행자부 방문

구도심 활성화 등 예산지원 요청

부안군 노점홍 부군수(사진)가 중앙부처 발령행정을 벌여 국가예산 확보 5000억 원 시대 발판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노점홍 부군수는 1일 행정자치부를 찾아 부안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7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요청한 부안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 조성사업과 백산면 백산성지 주변도로 정비사업, 부안군청 진입도로 개선 등이다.

구도심 활성화 관광 조성사업은 부안읍 동중리 일원의 공동화로 주변 상권이 쇠퇴해 낙후된 구도심에 휴식, 만남, 문화공간 등의 활성화와 관광 조성을 통해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다.

또 백산면 백산성지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백산성지 주변인 백산성터~백룡초등학교 구간이 차도와 인도가 구분 안돼 초등학생 등·하교 및 주민통행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를 정비해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노점홍 부군수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특교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점홍 부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자체 신규사업 추진하기가 어렵고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을 발전하려고 매우 중요한 만큼 언제, 어디라도 찾아가는 발령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예산 5000억 원 시대를 열고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민복(扶來彌福)'의 고장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소비자권익보호·상거래 질서확립 등 기여 공로

김생기 시장이 1일 한국소비자협회(사무총장 신현두)에서 주관한 2016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대회장 이종훈 한성대학교 이사장(소비자정책 부문)을 수상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소비자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해온 공로이다.

민선 5기, 6기 시장으로 재임해오고 있는 김시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피해 구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지난해만도 모두 2천709건의 상담 접수 및 피해구제 활동을 펼쳤고, 어르신과 취약계층 및 결혼이주 여성

등 피해 우려 계층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건전한 소비문화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인증 농식품 소비 확대와 전통시장 이용하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녹색생활 실천 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에 앞장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펼쳤고, 매주 2회에 걸친 물가파괴타오름을 활용한 물가 조사 등을 통해 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도 기여해왔다.

시상식은 당일 오후 2시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있었다.

김 시장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과소비 추방과 지원 재활용 등 소비자 책임 실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입법, 행정 등 6개 분야에서 매년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계회면은 영농철을 맞아 주민등록 및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신청·발급 등을 오전 8시부터 실시하고 있다.

## 부안계화면, 영농철 민원발급 서비스 시간 앞당겨

6월 20일까지 오전 8시부터

부안군 계화면이 영농철 바쁜 주민들을 위해 민원발급서비스를 조기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계화면은 영농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달 가량 주민등록 및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

본 신청·발급 등을 오전 8시부터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계화면은 면사무소 내 민원실에 민원발급서비스 조기 운영 홍보 안내문을 비치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소통·공감·동행행정 실현에 집중 펼치고 있다.

이평중 계화면장은 "농업인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민원발급서비스 조기 운영을 시행했고 불 영농철 시범시행 후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조기 운영을 시행·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바쁜 농민기에 농사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제시, 읍·면·동 순회 의료급여제도 교육

김제시에서는 오는 9일까지 1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19개 읍·면·동 순회 방문하면서 의료급여제도와 향후 지원 방향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 질병대리 과다의료이용자의 개별상담과 체계적인 집중관리는 물론 약물남용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건강 위협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끔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제정에도 안정화를 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날 캠페인은 흡연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빼앗아 간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 김제시, 청소년 금연캠페인

'세계 금연의 날' 맞아 중앙초에서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지난 5월 31일 제29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김제중앙초등학교에서 "담배 없는 청소년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협요인을 강조하고 흡연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빼앗아 간다는 슬로건으로 김제중앙초교 학생·교사들과 보건소 금연지도원 등이 함께 실시하였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

소를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장소 금연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보건소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정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 흡연자들이 언제든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과 니코틴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및 금연보조제 지급 등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금연도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한-영 해상풍력 공동세미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강국인 영국과 우리 나라가 서울 코엑스에서 해상풍력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황진택, 이하 예기평)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서남 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 승인(2016년 3월)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상풍력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마켓 진출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해상풍력 정책, 단지개발, 단지 건설에 대한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의 해상풍력 전문가 15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 국가인 영국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더욱이 영국 The Crown Estate의 Huub de Raaijck 이사가 영국의 해상풍력 정책과 해상풍력 단지개발 성공사례에 대해 기초 연설과 해상풍력추진

단 확규할 단장이 한국의 해상풍력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발표했다.

세미나에 앞서 주한 영국 참사관이 대사는 "예기평과 두 번째 한-영 해상풍력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개최되는 한-영 해상풍력 공동세미나가 글로벌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황규철 해상풍력추진단장은 "이번 세미나가 해상풍력 기술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의 장이 되어, 영국의 해상풍력 설치경험과 한국의 조선해양분야 생산기술력 협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는 영국측 전문가 7명과 국내 전문가 3명 등 국내외 전문가 10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려는 비즈니스 상담(B2B Meeting)도 이어질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귀결이 갈끔함을 한껏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chi Wine

GIFT SET 1.0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0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0 | 750ml 1ea/12%

GIFT SET 4.0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0 | 375ml 5ea/13%

GIFT SET 6.0 | 500ml 정병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0 | 375ml 2ea/13%

KOREAN TRADITIONAL WINE  
GANSSANMYEONGJU

TEL : 083-584-9980  
www.gansanwine.com

## 금산파출소, 정신질환자 범죄예방

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 금산파출소(소장 임진욱)는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금산면 관내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 관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있다.

금산파출소는 1일 관내에서 정신건강 병동 및 알코올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병원을 방문하여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시설안전 점검 실시하고 앞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취약지역인 모약산 주차장 및 구 아영장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아파트 등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주변 골목길 등에 대해 가로등 및 방범CCTV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교월동 현충시설물 환경정비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1일 관내에 소재한 충훈비 등 현충시설물 4개소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환경정비에 참여한 직원과 노인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은 현충시설물 주변 잡초와 방치된 쓰레기를 제거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높은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있기 위해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월동에서는 매년 현충일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호국·보훈의식 및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 관내에 소재한 현충시설물 '충훈비', '이상문학생 순의비', '반공 희생자비'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